

2002년 11월 21일

기독교 목회자 초청 토론회 연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목회자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단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인사드리면서 보니까 오래 오래 전부터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87년 때는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지금 항상 목사님앞에 설 때 마다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신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할 때 YMCA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했고 그 뒤에 좀 깊이 들어오면서 부산에 있는 인권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원회의 모임에 있을 때 마다 끼어주셔서 함께 배우고 제가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남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깝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목사님께서 역사에서 정말 우리국민들의 힘으로 좋은 계기를 만들어 놓고도 좌

절되고 또 좌절되던 안타까운 역사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참 뼈아프다 이 기회를 우리가 좀 더 잘 살렸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참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속으로 노여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겠는가 좌절감이나 패배감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빛나가지 않은 가장 큰 밑천이 무엇일까 역시 아이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때 좀 이것이 풀어졌다가도 다시 다잡게 되고 옆길로 빛나갔더라도 다시 바른길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일을 성취하고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아주 소중한 밑천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과연 희망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반 하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많은 갈등과 모순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백배정도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전세계에서 어느 민족도 쉽게 이루어 내지 못한 우리 한국의 정말 눈부신 업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민주적인 생취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좌절로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차대전 종전 이후에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중에서는 그래도 정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이 몇 몇 사람들의 탁월한 지도력보다는 우리국민들의 저력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야 말로 우리민족은 역량이 탁월하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참 답답함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문보고 TV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이유로든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서 훈련하다가 한국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재판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사과도 정작 받지 못하고 재판도 문제가 되고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아직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명쾌히 대답을 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전문가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놓고 왈가왈부하고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이르게 된 전과정에 있어서 그 재판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 재판을 동의하기 어려운 국민적정서가 형성되어 온 사실이 대단히 문제다 우리국민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 양국군의 관계나 그동안의 절차가 그야 말로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루어져 왔더라면 재판이라는 것은 엄격한 증거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우리의 과정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 한·미간의 관계나 한국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괴감같은 것이 오늘 이와 같은 현상으로 증폭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역사가 많은 말들을 했다하면서도 역시 아직 부끄러움을 아직 털어내지 못한 역사다 거꾸로 희망을 가지고 보면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딱 하나 역동적인 그야 말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한국이 지리학적으로 그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그야 말로 엄청난 번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중국의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고 중국

과 일본에 사이에 끼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살펴야 되고 이 변방의 역사를 극복해 볼 수 있는 그야 말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앓을까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남북문제만 잘 풀면 우리는 또 한번 도약하고 단지 과거에 우리가 좀 더 잘사는 나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아시아의 역사를 주도 해 나갈 수 있으니 떳떳한 나라 당당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는 시기인데 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역사의 상황을 제대로 맞이고 있는가 생각하면 저도 정치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분열입니다. 87년 6월항쟁 그리고 6.29선언이 나왔을 때 우리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또 희망찬 세상을 설계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완전히 좌절된 것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만큼 제가 봐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만한 과정을 걸어 오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함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그것이 우리민주세력의 분열에서부터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해방이후에 우리는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도 분단에서 비롯되었고 또 남한내부의 분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그야 말로 세계사의 조류속에서 우리 한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잘살려내겠다는 사람마다의 생각과 확신이 아직 굳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있는 것도 오늘의 우리의 분열된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동남아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지역감정으로 또 지역감정을

부채질해서 이렇게 하고 냉전주의 또는 이렇게 갈라져서 공고히 다져보지 않고 무조건 생각하는 이 정치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겪어왔지만 잘 극복해 냈다 이것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때도 아주 자본이 넉넉한 사람이 덕을 많이 보고 경제가 급격히 불황으로 곤두박질칠 때에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제일 큰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 과정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재미를 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IMF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그런 대로 조금씩 조금씩 빈부격차를 줄여왔던 것이 많이 벌어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절대빈곤층 이하의 사람들이 많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도 그 전하고 달라서 언제직장에서 쫓겨날지 또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쉽게 새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저런 과제를 풀자면 결국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해본 사람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도 대통령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냉전적 사고로 대결을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또는 지금 당장은 북한 핵문제를 예를 들면 미국이 강경하게 하고 있는데 남한까지 덩달아서 또 강경대치로 나아갔을 때 그 뒤에 우리 94년에 겪었던 전쟁일보직전 전쟁의 위협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 저도 평화주의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많지만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분들과 함께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실 것임으로 좀 모자라지만 한번 해 보겠다 생각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는 우리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의 고비를 넘기고 넘겨온 것이 국민들의 역량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기업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부린 것 말고 별루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움질만 한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맨날 싸움질만하고 또 지역감정 막 부추기고 보통의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불신을 부추기면 다 넘어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잘 안 따라오지만 남을 미워하는 것을 부추기면 금방 사람들이 솟구쳐서 넘어갑니다.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사람을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을 부추기는 것도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믿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신을 부추겨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겨 오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했는데도 우리국민들이 한동안은 속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반드시 불의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4·19도 하고 부마항쟁도 하고 광주항쟁도 6·10항쟁도 하고 이렇게 했고 국민들을 존경하고 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답답한 것이 멀리 역사를 내다보는 분들은 좀더 깊이 남북문제를 생각하고 빈부격차문제도 생각하고 좀더 자유롭게 공정한 시장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생각을 덜하더라도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큰 부정보다 지금 이 근래의 부정을 훨씬 잘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미 부정의 깊이 밭을 빠뜨리고 여러 개의 의혹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존경스럽다가도 쳐다보면 답답하고 그래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풍 그것 이미 다 주변사람들까지 다해서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병풍 얘기 그것 다하고 당이 좋아서 또는 당이 미워서 얘기하는데 당으로 치면 그야 말로 환란을 불러와서 수백만명을 길거리로 내몰고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엄청 축을 내고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그 정권아닙니까? 그 당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라예산을 1200억씩이나 들어다가 나눠서 국회의원선거에 다 써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 전원이 장물 획득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하고 정당지지도가 1위로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보다 얼추 배로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못된게 없지 않습니까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지지가 높으니까 어렵지요.

국민경선으로 후보가 되었다해서 조금 우쭐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분열이 가장 뼈 아픈일이고 이것 하나만은 어떻게 극복해 보자 이것을 극복하자면 과거에 함께 하다가 갈라진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현역정치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함께 같이 모셔보자 이런 생각해 가지고 김영삼 전대통령 찾아간 것인데 제가 코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디 가서 깡판이라는 것을 했다가 그만 아주 크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제가 표를 좀 많이 잃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덜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굳이 저도 답답하게 변명하면 참 사람이 친구 만나면 고추친구 죽마고우라고 해야겠네요. 고추 친구라고 하면 안되고 죽마고우를 만나면 어린 아이 행세를 하고 고등학교동창을 만나면 고등학교의 얼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저는 많은 서민들과 때로는 쌍욕도 하고 막말도 하면서 어울려왔기 때문에 편안한 우리 당원들 있길래 말한마디 편안하게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집에서 아내하고 농담을 할 때에도 아주 근엄하게 하고 나 배고픕니다. 혹시 밥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 잘 먹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면 짓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회창 후보를 나중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현실정치에서 사람은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도자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당에서도 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단일화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정몽준 후보를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회창 후보가 정권을 잡아서 남북관계도 그야 말로 깽판을 내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권의 시대를 다시 복원시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회창 후보도 후보지만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낫지 않겠는가 그 주변에 둘러싸인 분들 대개 짚어보면 시사합니다. 그래서 단일화해야겠다 제 마음에는 만족치 않은 점이 많지만 선출되고 있는 국민여론은 단일화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먹고 단일화 약속을 했습니다.

다되었다고 기뻐하고 토론도 하고 러브샷도 했는데 이게 재협상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협상 상황을 이행이 어렵다고 약속은 이행이 되어야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

니고 이행된 결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결과라고 만들어보자 이 자리에 계신 이재정 의원님도 잠을 못 주무시고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기 전에 또 단일화해서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정권을 가지고 가더라도 야당을 하더라도 자기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또 경쟁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신뢰를 상실하고 나면 그야 말로 새로운 희망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꼭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때로는 내가 이기기 못하더라도 단일화될 수 있다면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상 더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무조건 저 혼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 말로 진심으로 욕심을 버리고 단일화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제이든지 검증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험성의 배제라든지 검증과정의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그 공격을 시해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여러 무기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단연 제가 경쟁력도 있고 또 역사적 과제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익은 또한 대독선이고 자만 아닌가 그런 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쨌든 단일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정몽준 후보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작은 불안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목사님께서 간절한 기도 잘될 때까지 이행이 끝날 때까지 기도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